

keri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7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7년 6월

## 전망과 정책과제

- 제 1장 국내경제
- 제 2장 해외경제
- 제 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 부록

- 경기지표추이
- 경제정책정보

# 전망과 정책과제

## 제 1장 국내경제

1. 1/4분기 경제실적 및 향후전망
2.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정책과제

## 제 2장 해외경제

1. 국제환율
2. 국제금리
3. 국제원자재가격

## 제 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 부 록

경기지표추이

경제정책정보

# 제1장 국내경제

## 1. 1/4분기 경제실적 및 향후 전망

### 1) 97년 1/4분기 실적 및 최근 동향

1/4분기중 GDP성장률, 95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5.4%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성장둔화를 반영, 이번 수축기들어 가장 낮은 5.4%(이하 GDP기준)로 잠정추계됨.

- 분기중 물량기준 상품수출증가율(14.6%)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내수 신장세가 큰폭으로 둔화됨으로써 성장률이 이번 경기수축기중 가장 낮은 5%대를 기록함.
- 지난해 4/4분기중 크게 늘어났던 재고증가는 1/4분기중 둔화추세를 보임. 그러나 1/4분기중 재고증가는 1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경제성장	7.8	6.9	6.6	7.2	7.1	5.4	-	-	-	-
제조업생산	8.4	7.3	7.9	9.8	8.4	7.0	5.6	6.1	9.1	10.7
제조업재고	19.4	21.1	20.8	14.7	14.7	13.5	15.5	13.7	13.5	13.2
민간소비	7.7	7.4	6.2	6.5	6.9	4.4	-	-	-	-
소매판매	9.7	9.4	8.3	7.6	8.7	3.7	2.0	4.3	4.8	4.2
설비투자	4.9	4.6	9.3	13.7	8.2	-1.6	-	-	-	-
내수용기계류수입	8.2	-4.7	16.0	9.9	7.1	-15.4	-9.8	-13.8	-21.2	-12.7
건설투자	11.2	5.6	7.1	2.8	6.3	-2.5	-	-	-	-
건축허가면적	-7.4	-16.7	27.6	-5.5	-3.0	-4.1	8.3	-12.7	-6.4	0.2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4분기 들어 산업생산, 수출 늘어 경기회복 기대감 형성

- 수출물량의 꾸준한 증가세와 중화학부문의 높은 가동률 유지로 산업생산증가율이 4월들어 10%대(10.7%)를 회복하는 등, 지난 3개월간 외형적인 회복세를 지속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3/4분기 이후 감소해온 달러표시 수출액이 2/4분기중 증가세로 반전됨으로써 엔화의 절상추세와 더불어 향후 수출회복 전망.
- 내수부진으로 1/4분기중 4.5%에 그쳤던 출하증가세는 4월중 내수와 수출 모두 전월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30.3%), 컴퓨터관련(44.9%), 자동차(10.3%) 그리고 화학제품(11.4%) 등을 중심으로 더욱 높아져 8%대(8.4%)에 달했음.

○내수회복과 재고조정의 부진으로 경기저점 지연

- 2/4분기 들어 수출과 함께 내수용 출하증가도 늘고 있으나 수출에 비하여 내수용출하의 증가는 6.1%(4월중)로 부진하고 출하증가세를 주도하는 품목들의 경우 여전히 출하증가가 생산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음.
- 경기종합지수는 4월중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가 모두 상승하였음. 그러나 주요구성지표인 내구재출하지수 증가세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신용장내도액, 건축허가면적, 수출용원자재수입 등이 모두 감소함으로써 상승세의 지속여부는 확실치 않음.
- 재고의 경우, 4월중(13.2%) 전월(13.4%)과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석유화학부문의 설비보수에 따른 재고감소를 고려하면 재고는 전월비 증가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됨.
- 선행설비투자로 인해 4월중에도 생산능력증가가 비교적 높은 8.9%에 달한 반면, 생산량은 10.7%나 증가함으로써 평균가동률은 작년 5월(84.1%) 이후 가장 높은 82.5%를 기록함.

생산면에서 건설업의 부진이, 수요면에서는 내수부진이 경기수축 주도

○1/4분기중 성장률 둔화는 수요부진, 특히 내수침체에 기인함.

-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실질소득증가세의 둔화와 불황감의 확산으로 가계

소비지출(96년 4분기 6.5% ⇒ 97년 1/4분기 4.4%)이 급속히 위축됨.

- 상품재고와 미분양주택이 누적됨으로써 설비(-1.6%) 및 건설투자(-2.5%)가 감소세를 나타내었음.

○ 일부 도소매 판매와 내수용 출하 등 일부 지표가 호전되었으나 전반적인 내수 부진은 2/4분기(4월) 들어서도 지속됨.

- 민간소비지표인 도소매판매는 4월(4.4%)중 내구소비재(17.8%)를 중심으로 전월(3.9%)보다 다소 호전됨. 이는 전반적인 소비위축 속에 대형자동차(109.8%)와 휴대용전화기(198.8%)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함. 중소형승용차(-3.8%), 휘발유(3.7%), 녹화테이프(-51.9%) 등에 나타난 바와 전반적으로는 소비위축국면이 지속됨.

- 정부소비지출은 96년중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중심으로 7.1%나 증가하였으나 올 1/4분기중 정부 경상경비의 감축노력으로 4.6% 증가에 그침.

○ 생산면에서는 서비스부문이 통신, 금융, 보험을 중심으로 7.4% 성장하고 제조업은 5.7%(96년중 7.4%) 증가에 머물렀으며, 건설업(-1.9%)이 감소세를 보였음.

- 중화학부문(8.7%)은 화학제품(9.7%)과 전기전자제품(23.8%)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송용기계(-6.5%)가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감소함으로써 지난해(10.5%)에 비해 둔화된 추이를 보였음.

- 경공업부문(-5.0%)은 의복(-27.1%)과 신발(-20.0%)을 중심으로 감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난해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

- 건설업은 주거용건설(-8.1%)의 부진이 심화되고 지난해 14.3%나 증가했던 정부건설도 조기발주집행에도 불구하고 1/4분기중 0.8% 증가에 그침으로써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 4월중 설비 및 건설투자지표가 일부 호전되었으나 향후 지속여부는 불투명함.

- 운수, 통신 등 공공부문(37.0%)의 조기발주에 힘입어 4월중 국내기계수주는 17.6%가 증가했으나 기계수입액은 18.8%가 감소하는 등 정부의 조기발주효과가 둔화되면 향후 설비투자지표의 반전이 예상됨.

- 공공부문의 공사조기발주와 분양가조정을 포함한 주택분양규칙의 개선에 따라 4월중 국내건설수주는 46.6%나 증가하였음. 그러나 향후 건설동향을 예고

하는 건축허가면적은 월중에도 0.2% 증가에 그쳤음.

- 특히, 주거, 상업용 및 공업용 등 주요부문의 허가면적은 모두 감소함으로써 건설투자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임금상승 둔화와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둔화가 소비신장제약

○4월중 실업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지급기준 임금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2%p 이상 낮아져 연간으로는 한자리 수의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서비스부문의 취업자 증가가 여타부문의 취업자 감소보다 많아 실업자수는 전월 또는 전년 동월보다 줄었음. 실업률은 전월(계절조정 2.9%)보다 낮아진 2.7%이었음.
- 1/4분기중 지급액기준 임금은 지난해보다 2%p 낮아진 11%대이었으며 임금협상에 의한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3%대로 나타나고 있음.

수출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투자는 빠른 속도로 위축

○1/4분기중에도 달러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절하되었으나 가속적인 엔/달러 환율의 절하로 수출감소추세가 지속되었음.

- 물량면에서 볼 때, 상품수출(96년 14.5%, 97년 1/4분기 14.6%)은 1/4분기중에도 고정투자(-2.0%)와 소비증가(4.5%)의 둔화추세 속에서 여전히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부문이었음.

○지난해 경기수축과정에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8.2%)를 유지했던 설비투자는 올 1/4분기중 운수장비투자가 크게 감소(-5.4%)함으로써 -1.6%의 감소세로 반전됨.

○96년중 건물건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6.3%의 건실한 성장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올 1/4분기중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늘었으나 주택건설을 비롯한 건물건설(-5.0%)의 부진이 지속됨으로써 분기중 -2.5%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1/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 최대규모 기록, 2/4분기중 무역적자 축소

-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1/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는 분기기준으로 최대규모인 79억4,090만불에 달함. 이는 교역조건 회복지연과 엔저 지속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55억7,090만불에 달하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적자규모도 전년동기보다 확대된 데에 따른 것임.
  - 분기중 수출(국제수지기준)은 전년동기에 비해 3.0%가 감소한 305억5,970만불에 그친 반면 수입은 6.1%가 증가한 361억3,060만불을 기록함으로써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음.
  - 한편, 경상수지에 장단기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는 3월중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분기 전체로는 37.7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4분기중 수출은 전분기중의 감소세로부터 증가세로, 수입은 감소세로 반전됨으로써 무역적자폭은 4월중 전년동월의 절반수준으로 축소됨.
  - 전체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전통적 주력시장인 미국 및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신장을 제한하고 있음.
  - 미국시장내 부진(90년 3.7%, 95년 3.2%, 96년 2.8%, 97년 1/4분기 2.5%)은 아시아계 국가들이 대체로 모두 같은 패턴임. 이는 올 1/4분기까지의 엔화 약세와 관련되어 향후 엔화 강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정도에 따라 제한적인 회복가능성을 의미함.
  - 반면, 일본시장내(90년 4.5%, 95년 5.7%, 96년 이후 하락지속)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도국들의 시장점유율이 신장세에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 단기간내에 회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은 설비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을 반영함으로써 4월에는 원유를 제외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5월중에는 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비 감소세(-2.5%)로 반전함.
  - 이는 연초이래의 곡물과 원유 등의 국제가격이 하락한데다 국내소비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한 탓임.
  - 5월중 자본재수입은 작년 동월에 비하여 2.7% 감소하였으며 원자재 및 소비재 수입은 -2.6%, -8.7%가 각각 감소하였음.

### 농산물 공급안정과 내수위축으로 국내 물가안정 지속

- 경기심리 위축과 농수축산물의 공급안정으로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3.8%, 생산자물가 3.7%에 그쳐 지난해 5월 이후의 안정추세를 유지함.
- 원유가를 비롯한 해외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농수산물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안정됨으로써 일부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하향안정세가 지속됨.
- 연초 상승세를 보였던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은 3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됨.
- 부문별로는 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의 물가는 0.8% 증가에 그쳤고, 농축수산물은 3.5% 그리고 공공요금(납입금제외)과 개인서비스요금도 각각 2.4% 및 2.9% 상승에 그쳤음.

### 신용경색 속에 불안한 시중실세금리 하락

- 장단기 시장실세금리는 3월 이후 상승, 5월초 12.5%(회사채수익률) 내외에 달했으나 5~6월중 다시 11%대에서 안정추이를 지속하였음. 금리안정추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설비 및 건설 투자의 감소와 재고증가의 둔화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둔화
- 자금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기업들의 장단기자금확보가 상당규모에 이룸.
- 한보부도 이후 기업들의 단기자금확보를 위해 기업어음발행이 크게 늘었고(97년 1/4분기중 11조2천억원: 전년동기 6조3천억원) 환율안정에 따라 거주자 외화예금계정에서의 인출도 4~5월, 2개월 동안 1조7,600억원에 이룸.
- 그러나 여전히 높은 부도추세가 지속되고 실세금리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자금시장은 신용경색과 시장불안정이 상존함.
- 첫째, 대기업의 부도증가와 '부도방지협약'의 여파로 인한 시중의 신용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둘째, 기업의 자금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자금시장의 불안정으로 흑자부도

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함으로써 일부 자금가수요가 발생함.

- 셋째, 대기업의 잇단 부도로 지급보증기관의 기업보증기피로 회사채발행 허용을 받고도 회사채를 발행치 못한 비율이 1월 4.4%, 2월 4.2%, 3월 7.9%, 4월 8.5%, 5월 1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넷째, 일부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확보된 자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도금융권의 소극적 여신운용자세와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기업간 자금사정격차가 확대됨.

<표 2> 직접금융 조달실적 (1~5월)

(단위: 억원, %)

직접금융 조달실적 (1~5월)	132,725 (-7.7)
1. 신규기업공개	981(-51.6)
2. 유상증자	5,598(-51.6)
3. 회사채발행	126,146 (-2.6)
1) 보증사채	106,530(-10.9)
2) 무보증사채	19,616 (94.9)
3) 제조업	90,414 (-1.0)
4) 비제조업	31,664(-13.4)
5) 금융업	4,068 (65.6)

자료:증권감독원 (6/9)

### 3) 97년 하반기 및 98년 전망

2/4분기 이후의 점진적인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 회복 전망

○96년 4/4분기중 7.2%로 반등한 경제성장률(GDP)은 97년 1분기중 다시 5.4%로 떨어진 데 이어 연중 5.5% 그리고 경기저점을 벗어날 98년에는 6.3% 내외의 저성장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이후 달러표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한보사태 이후 연쇄적 기업부도는 하반기 이후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위축된 경기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하반기중 제한적인 수출신장이 예상되나 설비투자와 소비를 포함한 내수는 여전히 위축현상을 지속함으로써 97년 연간 성장률은 5%대(5.5%)로 예상됨.
- 98년중 완만한 수출증가세의 회복과 고정투자의 증가세로의 반전 등이 예상되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6.3%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됨.

98년까지 소비증가, 성장률 하회
--------------------

○ 민간소비지출은 96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하회하였으며 97년 들어서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도소매판매 등의 소비지표들이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과거 민간소비지출부문은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급속한 경기하강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번 경기하강국면에 있어서는 96년 3/4분기중 이미 민간소비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밑돌았음.
- 96년중 도시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비 12.6%가 증가한 반면 명목소비지출은 13.4%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분기별 소비증가추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경기하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4분기 이후 일부 품목(휴대폰, 대형승용차 등 신규품목의 출하증가)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내구재소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소비재의 소비가 여전히 감소추세를 지속하는 등 97년중 민간소비증가율은 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의 증가, 자산소득을 포함한 실질소득 증가율의 둔화 등 가계소득 증가의 둔화가 예상되는 98년까지도 이같은 추이의 지속이 전망됨으로써 민간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경기지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3> 97/98년도 분기별 경제전망

(단위 : 국제수지부문은 億弗, 기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996	1997				1998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7.1	5.4	5.7	5.7	5.2	5.5	6.3
제조업	7.4	5.7	6.9	6.0	5.3	6.0	7.1
총 소비	6.9	4.5	4.8	5.1	4.8	4.8	5.2
민간소비	6.9	4.5	4.9	5.3	4.9	4.9	5.4
고정자본형성	7.1	-2.0	-3.1	-2.3	-2.1	-2.4	4.1
설비투자	8.2	-1.6	-2.8	-3.0	-3.8	-2.9	3.7
건설투자	6.3	-2.5	-3.3	-1.7	-0.8	-2.0	4.3
생산자물가	2.7	3.7	3.7	3.6	3.1	3.5	2.3
소비자물가	5.0	4.6	3.8	3.7	4.5	4.1	4.5
경 상 수 지	-237.2	-79.4	-33.4	-40.0	-34.9	-187.8	-145.4
무 역 수 지	-152.8	-55.7	-15.0	-21.8	-11.9	-104.6	-58.9
상품수출	1,282.5	305.6	341.7	340.9	385.1	1,373.3	1,506.7
(증가율)	(4.1)	(-3.0)	(5.0)	(14.7)	(11.7)	(7.1)	(9.7)
상품수입	1,435.3	361.3	356.7	362.7	397.1	1,477.9	1,565.6
(증가율)	(12.2)	(6.1)	(0.1)	(2.7)	(3.1)	(3.0)	(5.9)
무역외수지	-76.8	-21.2	-16.4	-16.4	-21.2	-75.4	-78.5
원화 환율 (외)		897.1	890.0	880.0	875.0		
엔화 환율 (외)		123.9	116.0	115.0	113.0		
세계교역단가(외)	-1.9	-0.3	-1.6	-3.7	-5.9	-2.9	2.2
세계교역량 (외)	5.4	9.8	5.7	5.4	5.3	6.5	6.3

주 : (외)는 외생변수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단가상승에 의한 수출증가로 채산성은 호전되나 경기회복효과는 제약

○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절상압력이 작용하는 여건에서 외부적으로 2/4분기중 ‘엔강세-달러약세’는 주로 수출단가의 상승을 통해 달러표시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내수신장이 제약된 여건에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경제의 경기국면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임. 또한 단기적인 경기정책의 사용이 억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기수축국면이 보다 장기화할 우려도 있음.

○ 물량기준 수출증가세가 지난해(상품 14.5%)에 비해 올해(1/4분기 14.6%)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경기국면전환은 내수의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수출은 2/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하반기중에는 두자리 수 수출증가세를 나타내 연간 7.1% 내외의 증가가 예상됨. 이같은 달러표시 수출증가는 물량증가와 함께 단가회복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수출증가로 인

한 직접적인 성장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97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한 기술적 경기반등 이후에도 수요회복부진으로  
저성장국면 지속 예상

○96년 4/4분기중 경기수축과정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으나 국민계정이나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포함한 경기지표들은 대체로 상승함으로써 경기하락과  
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97년 1/4분기중에도 실물부문지표들의 지수하락과  
함께 경기지수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향후 2분기 이내에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으로의 이행은 예상되지 않음.

- 4월중 경기지수의 전반적인 반등이 있었으나 동행지수중 산업생산지수, 가동  
률지수와 전력사용량 등이 증가한 반면, 노동투입, 수입액 그리고 비내구재소  
비재출하 등은 감소함으로써 지표간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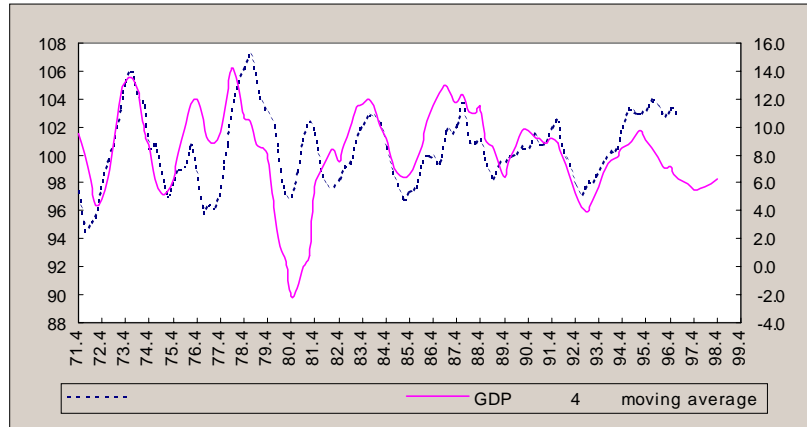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중에서도 수출관련지표인 신용장내도액, 수출용원자재  
수입액 등이 감소추이이고 건설관련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용 중간재생산지  
수 등도 감소추세를 보임.

○97년중 지난번 확장기를 주도했던 수출과 설비투자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이 예  
상되지 않음. 민간소비의 활기도 96년 하반기 이후 현저히 떨어지고 올 하반기  
중에도 재고조정과 함께 가동률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저  
점의 기술적 확인은 97년 4/4분기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이같은 전망은 97년 3/4분기 이후 수출증가율이 10%대를 회복하고 재고조정  
의 효과도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임. 제한적이거나  
수출회복이 예상되는 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이외에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이 중기적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주력품목들의  
국제시황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설비투자 역시 95년 4/4분기 이후 97년 4/4분기까지 2년여에 걸쳐 설비투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재고조정후의 설비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97년 말을 전후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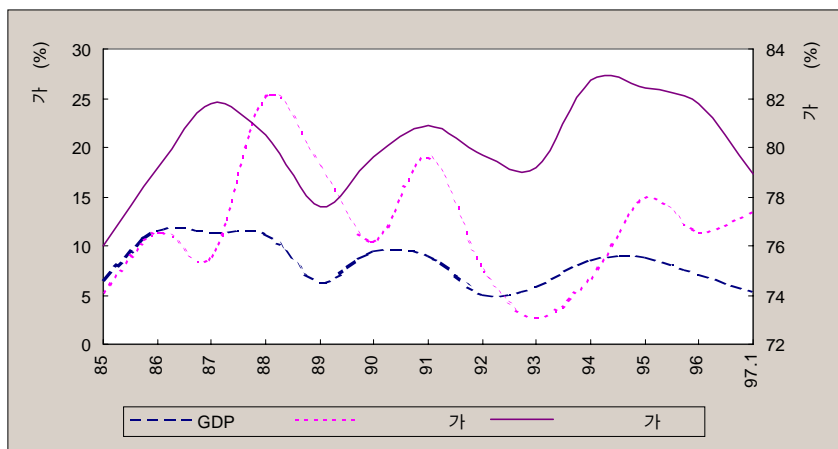
<그림 1>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GDP이동평균치



○ 지난해 20%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재고는 2/4분기 현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재고 및 가동률 조정이 연중 지속될 전망이다.

- 재고증가율은 96년 4/4분기 이후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올 1/4분기중 13.4%, 4월중 13.2%로 재고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짐을 반영함. 이에 따라 생산능력의 꾸준한 증가가 이어지는 하반기중 제조업 설비가동률은 7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상반기중 엔화강세 반전으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원화절상으로 반감

○ 97년 2/4분기중 엔화가 강세로 반전됨으로써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동시에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소폭이나마 절상기조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3개국 간 통화가치변동으로 인한 수출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96년 2/4분기 이후 1년간 약 14%의 원/달러 환율의 절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최근 엔화강세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절상추세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수출신장효과를 제약하고 있음.

- 95년 하반기 이후의 엔화 약세가 97년 2/4분기 들어 다시 절상추세로 반전, 하반기중 110~115엔/\$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일본 수출상품의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변동이 미미하고, 국내 수출상품의 주요 선진국시장내 가격경쟁력 취약과 원화절상으로 수출증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97년중 건설 및 설비투자 감소

- 95년 하반기 이후 수축기로 접어든 설비투자는 95년 15.8%, 96년 8.2%로 둔화되었음. 올들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됨으로써 97년중 지난해에 비해 절대투자규모가 감소(-3.8%)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고조정과 함께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지는 98년의 설비투자는 소폭의 증가세로 다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96년 하반기중 건물건설부문이 부진함으로써 예상보다 낮은 연간 6.3% 신장에 그친 데 이어 97년중에는 -2.0% 내외의 감소가 예상됨.
  - 이는 건설경기주기상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주택건설부문에서 누적된 미분양주택의 규모가 5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등 신규주택의 건축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임.

<표 4> 주택건설실적추이  
(단위: 천호)

1993	1994	1995	1996
695	623	619	592

자료: 건설교통부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으로 물가안정기조 유지 예상

- 97년 하반기중 물가는 경기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낮아지고 해외물가도 안정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4%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냄으로써 연평균 4.1% 내외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공공부문의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안정노력과 축산물가격의 안정 등에 따른 것임.
  - 98년중 평균 물가상승률은 96년보다 다소 낮고 97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4.5% 수준으로 예상됨.

하반기중 국내시장 실세금리는 안정추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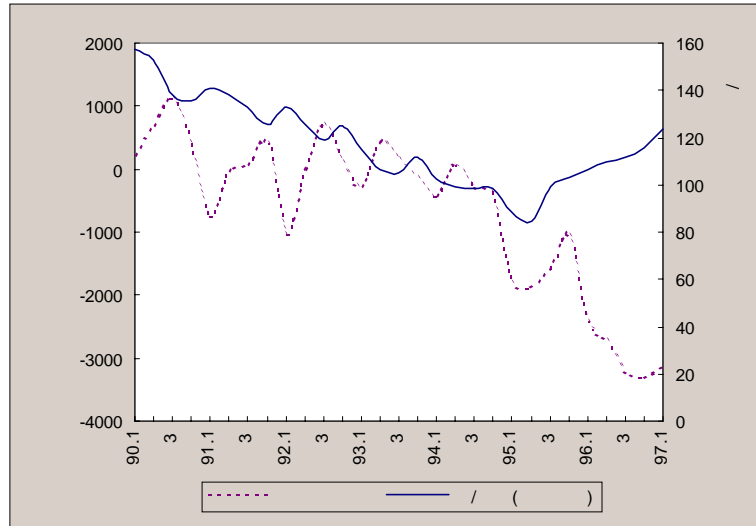
○97년중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운전자금수요가 다소 진정되고 투자자금수요도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96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어서 시장실세금리도 지난해 수준(11.9%)에 비하여 소폭의 하락이 예상됨.

- 지난 3~4월중 12.5%까지 상승했던 시중실세금리(회사채수익률)는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공급에 따라 다시 안정되고 있음. 금융시장내의 불안정요인과 대기업의 잠재부도위험 등 금리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투자위축으로 인한 자금수요 둔화는 금리인하요인이 되고 있음.
- 추가적인 금리하락요인으로는 기업자금가수요의 둔화,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 호전, 물가안정기조의 유지, 원화절상기조에 따른 거주자예금인출 등이 있음.

엔화강세는 하반기 이후 110~115엔/\$대에서 안정 전망

- 달러화강세 근거: 미국경제의 호조지속,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상대적 고금리인 미달러화의 매입수요증대
  - 엔화강세의 근거: 대일적자 확대에 따른 미일간 무역분쟁의 재연가능성, 일본의 경기확장세가 가시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엔화의 강세 전환 예상
- \* 5월까지 미국의 생산자물가는 연 5개월째 하락을 지속함. 1/4분기중 5.8%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를 75개월째 지속하고 있어 단기간내 미국경제의 인플레이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적어져 상대적으로 엔화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3> 대미무역수지 및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2/4분기

○올 4월 이후  
다시 절상추세  
로 돌아선 원/

달러 환율은 97년 말 875원/\$, 98년 말 860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추가적 절하압력이 상존하고 있으나 하반기중 미국 달러화 강세의 추가적 이완 가능성, 국내경기 하강속도 완화에 따른 외화유입증가와 수출회복 등으로 절상추세의 지속이 예상됨.
- 96년중 168억불의 장단기 외화자금이 유입되었으나 OECD 가입 첫해인 97년 중에는 200억불선에서 억제함으로써 환율 및 통화관리부담을 적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정책과제

- 우리경제는 대체로 95년 하반기 이후 4분기 동안 성장률 6~7%대의 경기수축기 전반부를, 96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 5~6%대의 경기수축기 후반부인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을 거쳐 98년에는 6%를 상회하는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된 이번 경기수축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수요 부양을 통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95년 4/4분기 이후 9분기에 걸친 경기수축기를 거쳐 97년 4/4분기를 경기저점으로 완만한 경기회복과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 예상성장률은 96년중 7.1%에 이어 97년에는 5.5%, 98년에는 6.3%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특히 2/4분기중 엔화가치가 다시 강세로 반전되고 해외시장에서의 일부 수출주도품목의 가격회복이 이루어지는 반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97년중 경상수지 적자가 190억불을 하회하고 물가상승이 둔화되는 등 대내외불균형이 시정되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지난 1년간 원화절하가 14% 내외의 큰폭으로 이루어지고 올 4월 이후에는 엔화가치가 달러에 대해 10% 내외의 절상추세를 나타냄으로써 하반기 이후 제한적이거나 수출확대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소비 및 설비투자의 둔화와 원화절하에 따라 수입은 2/4분기 들어 급속한 감소추이를 보임으로써 무역적자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주력품목(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완만하나마 수출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2/4분기 이후 엔화강세가 가세함으로써 향후 수출신장세와 채산성 호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제도적 여건의 정비노력이 구체화되는 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증폭가능성, 저성장과 실업증대 등 경기침체의 부작용과 함께 한보, 삼미그룹 등의 대기업 부도사태에 따른 파급영향, 그리고 체제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문제 등의 경제외적 부담요인도 적지 않음.
- 장기수축국면의 지속은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국제환율의 변화와 인위적인 주택건설의 확대 그리고 87년 '6.29선언' 이후의 경제민주화과정에서 높아진 국내 임금, 물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요소가격변수들의 수준과 왜곡된 가격체계를 시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올 4/4분기로 예상되는 경기저점의 도래를 2분기 앞두고 기업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선행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저성장국면의 장기지속, 구조조정지연 등이 우려됨.
  
- 요약컨대, 올해 우리경제는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에서 저성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 각종 국내 가격변수들을 선진국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그리고 경기둔화과정 속에서 경기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등 장단기 정책운영상의 부담요인을 안고 있음.

## 제2장 해외경제

<표> 세계경제전망

		1996	1997			1998		
			IMF	OECD	WEFA	IMF	OECD	WEFA
경제 성장률	전세계	4.0	4.4	-	3.7	4.4	-	4.0
	선진국	2.5	2.9	2.4	2.4	2.9	2.7	2.4
	아시아	6.3	5.7	6.2	6.5	6.1	6.4	6.4
	신흥공업국 <sup>1)</sup>							
원자재	원유가격 <sup>2)</sup>	18.9	-3.6	-7.8	-2.5	-6.7	-3.7	-6.0
교역 물량	세계교역 <sup>3)</sup>	5.6	7.3	7.3	7.0	6.8	7.3	6.6
	선진국수입 <sup>4)</sup>	5.3	5.9	6.2	2.0	6.1	6.9	6.8
	개도국수출 <sup>5)</sup>	6.5	11.0	-	9.2	8.1	-	10.7
환율 <sup>5)</sup>	엔/달러	108.8	-	114.1	117.6	-	114.1	111.5

주 : 1) OECD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포함

2) IMF는 브렌트, 두바이, WTI유의 평균가격,  
WEFA는 브렌트, 두바이, Alaska North Slope유의 평균가격,  
OECD는 OECD수입가격 기준

3) 수출입물량평균(WEFA는 수출물량)

4) 물량기준(WEFA는 금액)

5) 기말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1997.4),

OECD, OECD Economic Outlook(1996.12),

WEFA, World Economic Outlook(1997.5), Asia Economic Outlook(1997.5),

### 1. 국제환율

<표> 국제환율 추이

	1996			1997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18
\$/SDR	1.435	1.395	1.385	1.387	1.367	1.392	1.389
¥/\$	116.00	122.12	120.90	123.95	126.91	116.28	113.32
DM/\$	1.556	1.639	1.690	1.669	1.731	1.706	1.730
\$/£	1.691	1.602	1.629	1.653	1.631	1.641	1.639

주 : 각국의 현지환율,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연합뉴스

- 4월 : 미 달러화 강세

- 미 주식시장의 부진, 미 재무장관의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우려 표명, 독일의 경기호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 영국의 금리인상 기대의 확산 등으로 미 달러화는 4월 들어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음. 그러나 일본 통산성 장관의 달러화 강세용인 발언, EMU의 순조로운 출범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으로 4월초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 4월 27일에 열린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의 환율안정에 대한 미온적 합의, 미 재무장관의 달러화 강세용인 발언, 미 주식시장의 호조,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달러화 강세용인 시사 발언, 영국의 정국불안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4월말까지 강세를 유지하였음.

- 5월 : 미 달러화 약세

- 미 달러화는 5월 들어 일본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의 달러화 약세가능성 언급, 독일 연방은행 이사의 달러화 강세 저지 발언 등으로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서 약세로 출발하였음.
-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 축소에 대한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엔화 매입이 증대하고, 영국 재무장관의 ERM(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재가입에 대한 부인 발언 등으로 월초의 미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었음.
- 5월 20일 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 달러화의 매도세가 확대되었으며 독일의 경기회복을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는 5월말까지 계속되었음.

- 6월 : 미 달러화 혼조세

- 미국 달러화는 6월 6일 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간 무역마찰의 재연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엔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였으나 euro화의 약세전망과 영란은행 총재의 파운드화 고평가 우려발언 등으로 마르크화 및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임.

## 2. 국제금리

<표 >국제금리 추이

		1996			1997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18
미국	재할인율	5.00	5.00	5.25	5.50	5.50	5.00	5.00
	프라임레이트	8.25	8.25	8.25	8.50	8.50	8.50	8.50
	T/B(90일)	5.01	5.01	5.08	6.18	5.11	4.83	4.92
	T/B(30년)	6.58	6.79	6.80	7.10	6.96	6.91	6.72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0.50
	프라임레이트	1.63	1.63	1.63	1.63	1.63	1.63	1.63
독일	재할인율	2.5	2.5	2.5	2.5	2.5	2.5	2.5
	프라임레이트	4.5	4.5	4.5	4.5	4.5	4.5	4.5
유로금리 (3개월)	유로달러	5.52	5.56	5.50	5.75	5.81	5.50	5.56
	유로엔	0.53	0.56	0.56	0.58	0.59	0.53	0.53
	유로마르크	3.19	3.16	3.25	3.28	3.22	3.25	3.13

주 : 미국과 일본의 프라임레이트는 단기이고 독일은 롬바르트금리임.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연합뉴스

- 4월 : 미 장단기 금리 하락

- FRB은 3월 25일 FOMC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FF(Federal Fund) 목표금리를 0.25%포인트(5.25% → 5.50%)인상하였음. 그러나 3월말에는 FRB의 금리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금리의 추가인상설이 확산되어 장기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음.
- 4월 들어 소폭의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의 장단기금리는 4월말 전월에 비하여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이는 미국의 경기안정을 시사하는 경제지표들의 발표와 행정부와 의회의 연방예산의 균형달성합의에 따라 국채발행이 감소하고 이같은 채권물량의 감소에 따른 채권수익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 5월 : 미 장단기 금리 하락

- 5월초 미국의 장기금리는 주식시장의 호조 및 대규모 정부채 공모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단기금리는 FRB 의장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으로 하락하였음.
- 5월중 미달러화 약세로 인한 미 국채매도 확대 및 경기호조를 시사하는 일부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장기금리는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5월 20일 FRB가 FOMC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FF(Federal Fund)목표금리의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기금리는 하락하였음.
- 5월말 미국의 경기안정을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와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한

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섬으로써 장단기금리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음.

- 6월 : 미 장기금리 하락, 단기금리 소폭 상승
- 6월 들어 미국의 시장금리는 장기금리의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입이 증대됨에 따라 하락하였음. 이는 경기안정을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와 EMU의 순조로운 출범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단기금리는 6월 3일 샌프란시스코연준 총재가 미국경제가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상승하였음.

### 3. 국제원자재가격

<표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 추이

	1996	1997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6
브렌트유 (현물,달러/배럴)	23.57	23.28	19.42	18.53	18.27	18.99	17.43
WTI유 (현물,달러/배럴)	24.67	24.15	20.30	20.45	20.45	20.90	18.80
두바이유 (현물,달러/배럴)	21.33	20.72	17.56	18.12	17.69	19.19	17.28
로이터상품가격지수	1,860.5	1,945.8	1,950.7	1,967.1	1,961.3	2,039.5	2,008.8
소맥 (시카고,센트/부셸)	383.8	359.5	373.0	401.8	423.0	360.5	359.5
옥수수 (시카고,센트/부셸)	253.3	270.8	296.8	308.3	295.0	270.8	274.0
동 (런던,파운드/MT)	2233.5	2,397.5	2,429.5	2,426.0	2,428.5	2,591.5	2,550.5
알미늄 (런던,파운드/MT)	1481.3	1,597.5	1,623.0	1,607.0	1,609.0	1,615.5	1,572.5

주 :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조사통계월보”, 무역협회 “일간무역”

#### 1) 원유가격 동향

- 4월 : 원유가격 하락
- WTI 현물유가는 유럽 및 아시아지역 정유공장의 정기 시설보수에 따른 수요 부진과 OPEC 및 이라크의 수출물량 확대, 미국의 온난한 날씨 지속에 따



른 재고 증가 등으로 4월 5일에는 97년 들어 최저 수준인 배럴당 19.15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음.

- 이라크의 UN에 대한 1차 원유 수출 만료(6월 7일) 이후에도 이라크의 원유 수출이 추가로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미국석유협회의 원유재고 증가 발표 등에 기인하여 WTI 현물유가의 하락세는 4월말까지 계속되었음.

- 5월 : 원유가격 상승

- WTI 현물유가는 여름철 휘발유 성수기에 대비한 미국 정유사들의 원유 매입 확대 및 5월 8일 OPEC석유장관들이 최근의 유가약세에 대응하여 생산쿼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5월초부터 상승세를 보였음.
- 이란, 콜롬비아 등 주요 원유수출국의 지진 발생에 따른 원유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중동 걸프지역에서의 이란의 군사훈련으로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단기투기세력이 개입하게 되어 원유가격의 상승세를 가속화 시킴.

- 6월 : 원유가격 하락

- 6월 4일 UN은 6월 7일로 만료되는 이라크의 원유 수출기간을 연장하여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원유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고서와 미국내 원유재고 증가 발표 등으로 6월 들어 WTI 현물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 기타 원자재 가격 동향

- 4월중 소맥 가격은 미국 대평원을 엄습한 이상 한파로 겨울밀 수확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97년 들어 최고 수준인 437.0센트까지 오르는 등 전월에 비하여 큰폭으로 상승하였음.

동 가격은 세계 최대 광산인 칠레의 Escondida의 파업과 LME(런던금속거래소)의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파업종결이 예측됨에 따라 소폭의 상승에 그쳤음.

- 5월중 소맥 가격은 주요경작지의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소맥생산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동 가격은 칠레 광산의 파업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ME의 재고가 감소하는 등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되면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일부 투기 세력이 가세하자 전월의 상승세를 계속하였음.

- 6월중 소맥 가격은 작황호조로 예년보다 일찍 수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동 가격은 전월의 가격 상승에 따른 조정세력의 개입으로 6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섬 .

## 제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 1. 기업투자심리의 활성화

○ 올 4/4분기로 예상되는 경기저점의 도래를 2분기 앞두고 기업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선행투자의 부족으로 인한 저성장국면의 장기지속, 구조조정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주요기업의 투자계획은 지난해 실적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1/4분기중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1.6%를 기록하였음.

- 올들어 5월까지 자본재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감소추세를 지속하였음.

○ 따라서 투자심리를 활성화하여 기업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요구됨.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자금시장 불안정요인이 상존하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추가적인 조세적 유인의 제공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심리위축요인을 해소하는 것임.

- 기업 구조조정차원의 무리한 차입금 축소방안의 신중한 시행

- 자금사정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신용경색국면의 조기 해소

### 2. 점진적인 대외불균형의 축소

○ 요소비용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공업용 토지의 공급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해외자금 조달원의 활용확대 등 공급측 애로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 수출확대 도모

○ 국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화가치는 결제용 외환수급을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되,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개입을 줄이고 관련변수들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환율수준보다는 변동폭의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물량중심의 수출확대를 지양하고 채산성 확보와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교역조건을 개선

- 원화표시 수출입통계의 작성 공표

- 수출지원금융의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 3.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한 제도정비의 조속한 추진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내제도의 국제규범화 작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됨.

○ 특히, 자본시장 개방일정(blueprint)의 대외공표, WTO의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개방 및 국제화 일정은 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금융개혁안의 입법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계개편 등 시급하고 긴요한 대내 규범의 정비작업은 국내의 의견조정지연으로 지체됨.

# 부 록

## \* 경기지표추이 \*

<표 1> 최근의 소비행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민간소비	7.6	8.3	7.7	7.4	6.2	6.5	7.0	4.4
내구재	11.8	11.6	8.0	10.5	4.8	6.0	7.3	-2.1
준내구재	6.1	9.2	6.7	6.7	6.6	6.8	6.7	5.0
비내구재	5.2	6.1	5.3	3.6	4.1	3.8	4.2	3.1
서비스	8.7	9.0	9.3	8.6	7.5	7.6	8.3	6.3
정부소비	4.2	1.0	6.8	5.9	6.3	9.1	7.1	4.6

자료: 한국은행

<표 2> 소비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연간	1/4	2/4	3/4	4/4	연간	2월	3월	1/4	4월
도소매판매액	7.8	8.3	8.3	6.4	6.0	7.0	3.3	3.9	2.9	4.1
도  매	6.9	6.9	6.9	4.9	4.4	5.2	2.4	3.1	2.1	3.9
소  매	8.6	9.8	9.8	8.6	7.7	8.9	4.3	4.8	3.7	4.2
내수용소비재출하	7.4	5.3	5.3	1.9	5.9	5.2	-0.9	-0.1	-1.4	4.4
내  구  재	10.7	6.2	6.2	0.9	8.8	6.8	7.1	9.7	1.3	17.8
비내구재	5.7	4.9	4.9	2.4	4.2	4.2	-4.9	-5.5	-2.9	-3.1

자료: 통계청

<표 3>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연간	2/4	3/4	4/4	연간	1/4
설비투자	15.9	5.2	9.3	13.7	8.2	-1.6
기  계  류	22.6	4.6	14.5	12.4	9.8	-0.4
운수장비	2.4	5.6	-3.2	17.0	4.3	-5.4

자료: 한국은행

<표 4>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연간	2/4	3/4	4/4	연간	2월	3월	1/4	4월
국내기계수주액	15.8	22.5	9.2	15.7	14.3	-5.6	38.4	1.9	17.6
공공	3.3	26.1	-29.4	40.7	16.0	2.1	194.9	6.9	37.0
민간	19.2	21.6	18.7	10.1	13.9	-7.5	10.4	0.4	13.3
기계류수입액	27.0	12.9	10.1	10.2	8.3	-0.3	-7.5	-9.1	-18.8

자료: 통계청

<표 5> 최근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2/4	3/4	4/4	연간	1/4
건설투자	4.5	8.7	5.6	7.1	2.8	6.3	-2.5
건물건설	2.2	10.7	-1.3	0.4	-3.7	0.2	-5.0
기타건설	8.1	5.8	17.1	19.4	10.0	16.1	-3.4

자료: 한국은행

<표 6> 건설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연간	2/4	3/4	4/4	연간	2월	3월	1/4	4월
국내건설수주	21.2	11.6	17.5	20.5	21.4	39.9	54.25	36.6	46.6
공공	17.6	46.8	10.6	39.4	44.7	32.7	10.7	49.6	35.7
민간부문	23.2	-0.8	22.3	7.6	9.1	46.3	31.0	27.3	42.2
건축허가면적	1.0	-16.7	27.6	-5.5	-3.0	-12.7	-6.4	-4.1	0.2
주거용	-1.2	-9.3	20.6	-5.9	-2.5	-16.0	-18.6	-8.5	-3.5
상업용	3.8	-24.3	36.4	-5.4	-5.9	-9.6	17.0	2.5	-3.5
공업용	3.3	-29.1	12.8	18.4	-13.2	-39.3	39.3	-12.6	-12.8
해외건설수주	16.3	-19.8	0.0	15.8	-4.9	-34.4	43.8	74.6	

자료: 통계청

<표7> 경기지수 동향

단위: 전월비(%)

	1996					199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기선행지수	0.0	1.1	0.2	0.8	0.1	0.0	0.0	0.8	1.1
경기동행지수	0.1	0.7	0.8	0.3	0.6	-0.7	-0.1	-0.1	0.9
(순환변동치)	101.5	101.7	102.0	101.9	102.0	100.9	100.2	99.8	100.2
경기후행지수	0.4	0.7	0.3	0.1	-0.1	0.8	-0.1	-0.3	0.3

자료 : 통계청

<표8> 고용 및 임금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4/4	연간	3/4	4/4	연간	2월	3월	1/4	4월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2.7	62.5	62.0	60.6	62.1	61.1	63.0
실업률	1.8	2.0	1.8	2.0	2.0	2.6	3.4	3.1	2.8
전산업임금상승률 (제조업)	10.2 (8.3)	11.2 (9.9)	12.7 (12.0)	11.1 11.4	11.9 12.2	11.3 9.0	- -	- -	- -

주 : 실업률은 계절조정수치임

<표9> 물가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1/4	4월	5월
생산자물가	4.7	2.7	3.7	3.8	3.7
소비자물가	4.5	5.0	4.7	4.3	3.8
농축수산물	0.1	1.8	2.6	3.9	1.2
공업제품	3.7	4.3	1.2	4.4	4.0
서비스	7.7	5.8	1.9	4.5	4.6
수출물가	1.3	0.5	6.1	9.3	9.9
수입물가	5.8	0.0	6.3	8.1	8.9
수출단가	5.0	-12.8			
수입단가	8.9	-0.3			

자료 : 한국은행

<표10> 산업생산관련 지표

	1996				1997				
	1/4	2/4	3/4	4/4	1월	2월	3월	1/4	4월
생산능력지수	136.3	138.3	140.8	145.0	149.2	148.6	149.0	148.9	149.8
생산지수	156.1	162.5	159.5	174.9	165.6	155.4	180.5	167.2	182.6
제조업평균가동률	82.3	81.7	82.2	81.2	76.9	79.7	80.3	78.9	82.5

<표11> 경제성장율과 재정규모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예산)	1997(예산)
경상 GNP	14.5	14.8	12.3	11.3
일반회계	15.6	16.7	16.2	12.4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16.8	15.1	14.8	13.4
통합재정 <sup>1)</sup> 세출 및 순융자	19.0	18.6	16.2	16.7
총재정규모(중앙 및 지방)	31.4	19.8	9.5	7.9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원

주 : 1) 중앙정부+비금융공기업

<표12> 최근 수출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3월	1/4	4월	
전체수출	318.3 (21.5)	294.5 (3.5)	301.1 (-7.5)	334 (2.1)	1247.9 (3.7)	113.3 (-3.1)	297.5 (-5.5)	113.8 (7.0)	
품목별	중화학	225.0 (25.3)	223.7 (0.1)	196.0 (-14.0)	230.1 (-1.6)	874.8 (0.9)	75.3 (-9.1)	196.8 (-12.0)	75.8 (7.2)
	경공업	73.8 (12.6)	87.3 (9.7)	80.7 (3.4)	77.8 (7.0)	319.6 (7.5)	28.3 (5.4)	74.2 (2.7)	28.3 (3.6)
지역별	대선진국	152.4 (18.0)	145.3 (-8.7)	131.9 (-17.6)	142.4 (-19.1)	572 (-8.0)	49.3 (-8.0)	128.0 (-14.9)	47.6 (0.9)
	대개도국	165.9 (25.0)	189.2 (16.9)	168.1 (4.6)	191.8 (11.6)	715 (14.1)	64.3 (1.7)	169.5 (3.1)	66.2 (11.9)

자료: 통상산업부

<표13> 최근 수입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3월	1/4	4월
전체수입		356.8 (16.8)	370.6 (6.7)	371.8 (7.7)	404.1 (14.4)	1503.2 (11.3)	131.1 (8.0)	372.3 (4.4)	128.7 (1.5)
품목별	원자재	185.1 (19.0)	187.6 (9.4)	174.6 (3.5)	197.6 (7.9)	744.9 (10.2)	69.8 (18.4)	201.3 (8.8)	64.8 (0.2)
	자본재	133.6 (12.0)	140.5 (0.2)	152.5 (10.1)	161 (18.5)	587.6 (10.0)	47.7 (-3.6)	131.9 (-1.3)	50.0 (3.0)
	소비재	38.1 (25.1)	42.5 (18.9)	44.7 (17.8)	45.4 (21.3)	170.7 (21.2)	13.6 (4.7)	39.2 (2.8)	14.0 (2.8)
지역별	대선진국	233.3 (13.9)	246.6 (3.9)	247.8 (5.0)	258.8 (9.0)	986.5 (7.8)	80.6 (-4.5)	229.9 (-4.4)	83.8 (-0.9)
	대개도국	123.5 (23.0)	124.1 (12.6)	123.9 (14.2)	145.1 (24.2)	516.6 (18.5)	50.5 (36.4)	149.4 (21.0)	44.9 (6.4)

자료: 통상산업부

<표14> 최근 국제수지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3월	1/4	4월
경상수지	-46.4	-52.4	-74.8	-63.6	-237.1	-22.1	-79.4	-17.1
무역수지	-25.5	-30.9	-56.0	-40.4	-152.7	-13.3	-55.7	-8.0
수출증가율(%)	20.5	3.9	-6.5	1.5	4.1	0.4	-3.0	7.0
수입증가율(%)	18.7	7.8	8.4	14.7	12.2	10.9	6.1	1.5
무역외수지	-19.2	-18.9	-17.2	-21.3	-76.8	-8.1	-21.3	-8.8
이전수지	-1.6	-2.6	-1.5	-1.8	-7.5	-0.7	-2.4	-0.4
자본수지	46.3	74.6	1.1	50.2	172.2	27.3	46.1	12.6

<표15> 원화환율추이

	1994	1995	1996		1997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788.70 (2.4)	774.70 (1.8)	828.70 (-6.5)	844.20 (-8.3)	863.90 (-2.3)	897.10 (-6.3)	892.10 (-5.4)	891.80 (-5.3)
원/100엔	790.68 (-8.6)	749.23 (5.5)	727.79 (3.0)	726.51 (3.1)	715.30 (1.5)	723.18 (0.5)	702.72 (3.4)	765.49 (-5.1)
엔/달러	99.58 (-10.9)	103.43 (3.8)	113.87 (11.6)	115.85 (12.0)	121.44 (15.3)	124.05 (15.6)	126.95 (20.7)	116.25 (7.5)

자료 : 한국은행

주: ()안은 전년말비 절상 또는 절하(-)율

기말기준

<표16> 부문별 총통화(M2)지표 추이

단위:억원

	1996	1997					
	4월	1월	2월	3월	1/4	4월	
정부부문	-35,100	-57,082	30,135	-10,325	-37,272	-3,961	
민간부문	51,800	47,932	32,186	60,273	140,391	44,513	
해외부문	900	-18,770	-18,734	1,135	-36,369	-9,467	
기타부문	16,000	19,824	10,042	57,696	87,562	-14,948	
총통화(M2)	19,200	-8,097	53,630	6,613	52,146	16,137	

자료 : 한국은행

주 : 말잔증감액기준

<표17> 최근의 총통화 동향

단위:십억원, %

	1996		1997				
	3/4	4/4	2월	3월	1/4	4월	5월
총통화(M2)평균잔액	161,830	170,244	180,716	181,644	179,710	182,917	183,715
총통화증가율(평균)	17.3	18.2	19.8	20.5	19.4	20.8	18.9
M2+CD증가율(평균)	16.7	16.5	17.8	17.5	17.6	16.8	15.9
MCT	21.8	19.9	18.6	17.8	18.2	16.6	15.6

자료 : 한국은행

<표18> 기업직접금융조달

단위 : 억원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주식발행	9,698	9,830	16,379	14,588	50,451	3,522	428	1,881
회사채발행	47,784	34,146	24,452	47,422	152,553	25,801	12,812	6,690
전체	57,482	43,976	40,831	62,010	203,004	29,329	13,240	8,571

자료 : 한국은행

<표19> 금리 및 자금사정동향

단위 : %

	1996					1997			
	1/4말	2/4말	3/4말	4/4말	년말	1/4말	4월말	5월말	
콜금리	9.37	13.49	15.93	12.20	12.20	12.97	14.16	11.73	
회사채유통수익률	11.44	11.70	12.40	12.45	12.45	12.50	12.50	11.90	
CD유통수익률	11.35	12.65	14.40	13.35	13.35	13.45	13.10	12.24	
어음부도율	전국	0.16	0.12	0.12	0.14	0.14	0.23	0.25	-
	서울	0.10	0.07	0.07	0.08	0.08	0.17	0.18	-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콜금리 : 1日物 기준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3) CD유통수익률 : 91日物 기준

## \* 경제정책정보 \*

6/19 통상산업부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출,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카보닐디클로이드 등 43개 물질군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를 골자로 97.6.20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주요 개정내용

6/18 통상산업부

- 6대 구조개혁과제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경제의 취약점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추진키로한 금융,세제,인력,입지,목류,기업구조 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과제 내역

6/17 중소기업청

- 유아용섬유제 기저귀커버 KS 표시허가 심사기준 제정공고
  - 97.6.17 에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이 제정한 유아용 섬유제 기저귀커버에 대한 KS표시허가 심사기준 주용내용

6/17 중소기업청

- 중소 레저,스포츠용품산업 육성전략방안 수립 추진
  - 중소기업청과 산업연구원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최근 국제수지 둔화와 함께 국제경쟁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레저,스포츠산업의 중소기업 육성방안 주요내용

6/17 중소기업청

- 제품규격에 환경적 영향측면을 도입하는 국제지침 제정
  - 97.5.24자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제품규격에 환경영향측면을 도입하는 국제가이드를 제정함에 따라 마련한 동 가이드를 KS규격으로 제정하여 전 제조업체에 대해 신속히 보급하는 내용

6/11 재정경제원

-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
  - 재정경제원이 97.8.1 부터 새행할 해외직접투자 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6/11 재정경제원

-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사채형 투자신탁 조기허용
  - 97.6월말부터 현재 기존 투신사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제한되고 있는 투자

## 신탁운용회사에 대한 공사채형 투자신탁 조기허용방안

### 6/11 통상산업부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복덕방 개원
  - 21세기 우리경제의 견인차가 될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신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개소식 거행내역

### 6/11 통상산업부

- 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창업자 기술우대보증 특례제도 신설
  - 신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 박사학위자, 기술사 등을 개인의 연구실적 및 사업계획내용을 사전평가한 후 창업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우대 보증 특례제도 시행내역

### 6/3 재정경제원

- 국유재산시행령 개정
  - 재개발지역내 국유지 점유자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대금 분납이 자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주요내용

### 6/3 통상산업부

- 중소기업대상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검색료 대폭인하
  -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보활용 촉진과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산업기술정보원이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검색료 인하내역

### 6/3 중소기업청

- 어음거래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 97.6.2-30일 동안 최근 한보, 삼미그룹 부도 등 대형 금융사건의 여파로 금융기관들의 신규대출 축소 및 대출금 회수로 인하여 부도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청 본청과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마련한 어음거래 애로신고 센터설치 운영 계획

### 5/30 통상산업부

-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발주 확대로 자동차부품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 5/30 통상산업부

- 97 자본재 전략품목개발 자금 융자개시
  -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핵심산업으로 추진중인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사업의 개발 대상품목 및 개발업체 내약 및 융자지원 계획 주요내용

5/29 재정경제원

-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 현행 재정자금 배정방식 개선, 자금 배정시기의 정기화, 자금배정관련 문서의 정비 등을 골자로 97.6.1부터 시행할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주요내용

5/28 재정경제원

- 부가가치세법 새행규칙 개정
  - 96.12.30 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새행렬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안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97.5.31자로 시행할 부가가치세법 새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5/28 재정경제원

- 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6월말로 종료되고 수입개방 등에 따라 조정과 세 적용수요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97.7.1부터 시행할 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5/28 재정경제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 긴급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5/26 통상산업부

- 정보기술제품,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인하 조치 내역

5/2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위해 97.5.24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개정령안

5/22 통상산업부

- 올해 중기거점기술개발 7개 신규사업 확정, 공고
  - 97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중기거점 기술개발 신규지원사업으로 철도차량 추진장치, 중형 해면화과이 여객선, 냉동공조기기의 고효율과 등 7개 신규사업 확정공고

5/16 재정경제원

- 97년 채권시장개방 조기 확대방안
  - 자본시장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97.6.2부터 새 행키로 한 외국인 채권투자 허용방안 주요내용

5/15 통상산업부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추진
  -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 제도의 운영 강화 등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7.5.16 입법예고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5/12 통상산업부

- 유통산업의 장기전망 및 발전전략 수립
  - 대한상공회의소 및 관련전문가들의 협조로 마련 발표한 2000년대의 우리 유통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한 유통산업의 장기전망 및 발전전략 주요 내용

5/13 재정경제원

- 기업의 직접금융조달기회 확충방안
  -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채 발행물량조정제도를 폐지하고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한 기업의 직접금융조달기회 확충방안

5/13 재정경제원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그동안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 결정시 물가안정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내역

5/7 재정경제원

- 보험업법 개정 추진
  - 보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신설될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개정키로 한 보험업법 주요내용

#### 5/7 통상산업부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새로운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유통산업의 장기발전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입법예고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5/6 통상산업부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 산업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7.5.8부로 입법예고하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주요내용

#### 5/6 재정경제원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추진 주요내용

#### 5/6 재정경제원

-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추진
  - 96.11월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

#### 5/6 재정경제원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현하여 입법예고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5/1 재정경제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추진
  - 3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입법예고하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5/1 통상산업부

-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97.5.1일 부터 시행
  -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시책을 강화



하기로 하고 97.5.1부터 실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주요내용

4/28 통계청

- 소비자물가 조사방법 변경
  - 가격변동이 적은 품목은 조사빈도를 줄이는 대신 가격변동이 잦은 품목(농축산물)은 실거래가격을 출처해 조사하는 등 물가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비자물가 조사방법 변경내용

4/23 재정경제원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97.4.23 개최된 제11차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조세감면규제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